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 프랑스 해군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건조와 프랑스의 야심



Launch of the Suffren nuclear attack submarine in Cherbourg

\* 출처 : 프랑스 엘리제궁 홈페이지(<https://www.elysee.fr>)

지난 7월 12일에 프랑스 해군은 에마뉼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루비스급 핵잠수함(SSN)을 교체할 신형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1번 쉬프랑함(Suffren) 진수식을 거행하였다.

쉬프랑 핵잠수함은 프랑스 해군이 총 90억 유로를 투입한 차세대 핵잠수함의 첫 번째 잠수함으로 향후 6척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06년 프랑스 해군은 네이벌 방산업체 그리고 아레바 크니카툼 원자력개발사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건조사업’을 계약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에 1번 쉬프랑함을 진수시켰고 이어, 2번 뒤게 트루앵함, 3번 투르비유함, 4번 그라스함을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확보하고, 5번 카사비앙카함과 6번 루비스함은 2029년까지 확보해 2척

씩 3교대로 운용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수리-교육훈련-작전투입』의 3교대 개념으로 운용된다. 프랑스 해군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기본적으로 2060년까지 약 35년간 운용할 계획이나, 연장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주요 임무는 수중에서 은밀히 1,000km 이상의 적 지상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전략적 함대지 타격전, 대함전, 대잠전, 각종 음향정보 수집전 등으로 적 연안에 침투하는 특수부대 요원에 대한 모함(母艦)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제원은 5,300톤, 수중 25노트/수상 14노트 속도, 70일 수중작전 기간(주·부식 공급 기준), 기존 핵 엔진보다 약 40% 이상의 추진력을 갖는 K-15 핵 엔진, 기존 7년보다 3년 연장된 10년의 핵연료 재충전과 정기유지 및 보수(Overhaul) 주기 등으로 『수중작전 완전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핵추진체계는 기존 수압 추진이 아닌, 펌프제트식 추진으로 개선하여 기존 루비스급 핵잠수함보다 정속도가 약 10배로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무장은 533mm 중어뢰 8발, FG29 기뢰 10발(통상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을 통해 기뢰를 수중에 부설함), NDCN SCALP/Exocet 재래식 순항 탄도미사일 20발 등이고, 곧 신형 핵탄두 탄도미사일도 탑재할 예정이며 프랑스 특수부대의 적 연안 침투지원을 위한 특수 챔버도 탑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설계 시 프랑스 해군은 바라쿠다급 핵잠

수함에 재래식 순항 미사일만을 탑재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러시아 핵위협이 증대되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핵전략조약(INF)이 폐기됨에 따라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에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나토(NATO)의 대(對)러시아 핵 억제력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이 영국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대서양, 북해 및 발틱해에 교대로 배치되어 러시아 SSBN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deterrence by denial)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2일에 미국이 INF를 폐기하여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경쟁이 가속화되자, 프랑스 해군은 러시아보다 열세한 나토를 지원하기 위해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에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여 나토와 유럽 간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프랑스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갖고 있는 나토의 독자적 유럽방위체계 강화를 위해 유럽 10개국 간 『유럽 신속대응군』 구성을 위한 『유럽개입구상(E2I)』을 선언하는 등 유럽안보를 주도하면서, 이번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에 중거리 핵탄두 탄도미사일 탑재를 통해 프랑스의 위상을 증대시키려 한다”라고 전망하였다.

※ 약어 해설

- SSN : Nuclear-powered submarine
- INF : Inter-mediate Nuclear Force Treay
-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SSBN : Nuclear-powered Strategic Ballistic Missile
- E2I : 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

\* 출처: Jane's 360, July 12, 2019; Defense News, July 12, 2019; The Defense Post, July 2, 2019; 국방일보, 2019년 8월 29일, 14쪽.

저작권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